

현대미술 새 경연장 대만



‘거대 가속’을 주제로 ‘타이페이비엔날레 2014’가 열리고 있는 타이페이시립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대만 작가 수라시 커 소롱의 작품 ‘Golden ghost’를 둘러보고 있다.

아시아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물론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대미술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선정된 광주비엔날레를 필두로 상하이비엔날레,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타이페이비엔날레 등 아시아권의 비엔날레와 함께 아트페어 등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대만도 그중 하나다. 대만은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중국, 홍콩 등과 작가 교류 등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센타로의 도약을 시도 중이다.

19~21일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과 진시영 작가, 대만 단수가 역사박물관의 초청으로 타이페이비엔날레 2014와 현대미술관인 모카미술관을 둘러봤다.

타이페이비엔날레는 타이페이시립미술관이 1984~1991년까지 개최한 ‘대만 현대미술 트렌드’전과 ‘대만의 현대 중국 조각’전을 1992년 하나로 합친 행사로, 타이페이시립미술관이 주관한다.

지난 13일 개막한 행사는 내년 1월4일까지 ‘거대 가속(The great acceleration)’을 주제로 타이페이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타이페이시립미술관은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이 돋보이는 미술관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미술관에 들어서자 일본, 홍콩, 미국 등 각지에서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찾아온 인파들로 붐볐다. 타이페이시립미술관은 26개의 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전시실과 전시실을

타이페이 비엔날레 내년 1월 4일까지 ‘거대 가속’ 주제 양해규 설치작 등 편안한 작품 속 목직한 경고 메시지

모카미술관 컬렉션 대신 각국의 젊은 작가 작품 전시

이어주는 통로도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관람객들이 쉽게 작품들을 만나게 되었다. 특히 1 전시실에서는 한국의 설치미술가 양해규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가발과 빛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의인화한 그의 작품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작품 중 하나였다.

발걸음을 옮기자 2014광주비엔날레에서 ‘스토브’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스털링 루비의 작품 ‘DRIFTERS(4121)’이 눈에 들어왔다. 사회라는 틀 안에 갇힌 인간의 군상과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대만 작가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펑 흥진 작가의 ‘The Deluge-Noah’s Ark’는 비엔날레 기간 작은 규모의 3D 프린터를 활용해 뒤틀러버린 배를 점차 완성해가는 작업이다.

전체적으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편안함과 불편함을 번갈아 안기고 있었다. 2014광주비엔날레 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작품들은 핵물질 사용과 환경오염 등 인류의 활동으로 기후와 생태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경고를 던지면서 결코 가볍게 만을 볼 수 없었다.

타이페이비엔날레에 이어 타이페이 중심에 자리한 모카(Museum of Contemporary Art)타이페이미술관을 방문했다. 초등학교 건물을 개조해 개관한 모카미술관은 박물관 같은 고풍스러운 외관과 달리 가장 촉망받는 젊은 예술가들의 현대미술만을 전시한다. 내부는 학교 복도와 계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고, 외부에는 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미디어아티스트들을 초대해 상시적으로 파사드 작품과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이 미술관은 작품을 컬렉션 하지 않는 대신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한다. 1년에 5차례의 주요 기획전과 8차례의 실험적인 전시를 선보인다.

특히 대만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과의 큐레이터 교류를 통해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인도 등과 전시를 열었고, 최근에는 홍콩과 전시를 준비 중에 있다. 지난 6월까지 한국의 K-POP을 주제로 작품들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쑤이 젠 신 관장은 “국가별로 교류 전시와 인력 교류를 통해 각국 간의 대화를 이루는 전시들을 주로 한다”며 “조만간 파워풀한 한국의 현대미술을 관람하기 위해 광주비엔날레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페이=김경민기자 kki@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만을 전시하는 모카타이페이미술관 전경.

칠레로 떠나요 클래식 기타 선율 타고



가을밤 수놓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 칠레 출신 클래식 기타리스트 알렉시스 바예호스가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25일 오후 7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 공연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알렉시스 바예호스의 광주 공연은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최한다.

알렉시스 바예호스는 제21회 안드레스 세고비아 국제 기타 경연대회에서 만장일치 대상, 국제아드리아티 페스티벌 이탈리아 음악 최고 연주자상을 수상한 음악가로 이번 공연에서는 파라과이 등 남미 출신

작곡가들의 곡을 중점적으로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스페인의 유명한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가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요청을 받고 작곡한 ‘어느 귀인을 위한 합창곡’, 아구스틴 바리오스의 ‘홀리아 플로리다’, 아르헨티나 출신 작곡가 호세 루이스 메를린 곡 ‘컨트리 댄스’, 칠레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한 ‘세피아의 노래’, 이삭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중 ‘아스투리아스’ 등이다. 티켓 가격 예매 1만원, 현장 구매 1만5000원.

문의 062-226-27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wondering book’



담양 역사가 ‘궁금해요-잉’

대담미술관 27일까지 이유현전...24일 시·도민 ‘사랑의 모닥불’

전남문예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4 대담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네 번째 결과발표전 이유현씨의 ‘궁금해요-잉(Wondering : Damyang)’전이 27일까지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열린다.

이씨의 전시는 담양의 사람들과 풍경 속에서 전해져 오는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전시 테마로 한다. 이씨는 대담미술관 창작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수시로 변하는 풍경들을 보면서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됐다. 또 눈앞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진행형(~ing)인데 반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담양 향교리는 마을 주민들의

기억의 단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가는 대나무로 책을 만들었다. 책 안에는 주민들의 기억들이 녹아 있는 현장을 담은 사진이 빼곡하다.

한편 대담미술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4일 오후 7시 미술관 내 김나무 집에서 시·도민을 초대해 ‘대담 문화의 밤-사랑의 모닥불’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전시를 열고 있는 이씨와 참여 관객들이 모닥불에서 감자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 담양에서의 일상, 담양의 옛 모습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문의 061-381-0082. /김경민기자 kki@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전용면적 59㎡
228세대

전 세대 남향배치



- 입주전 베이커아웃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공향시스템 설치
- 욕실 내부 환경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건식욕실 (안반)
- 애완동물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빙2개 및 주방 확장형
- 안방 불박이장 설치



문의062
264-7789

시행 | 주 | 심산건설 | 시공 | 주 | 구산건설

MH_전대사거리 모아엘가 주택전시관 2층

10월
OPEN